
2018학년도 제1차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2018. 5. 8. [화]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18학년도 제1차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8. 5. 8.(화) 16:10 ~ 18:00

2. 장 소 : 대학본부 제2소회의실

3. 참석현황

- 출석 위원(13명) : 안홍섭, 황영호, 이성수, 이성미, 양현호, 한모성, 김영철, 이지숙, 박경원, 장재양, 김한별, 김삼전 위원
- 불참 위원(2명) : 이국용, 문완식 위원
- 참석 교직원(5명) : 천미경(재무과장), 이승민(재무과 팀장), 이소진(재무과 주무관), 김수미(주무관), 하종수(회계사)

4. 안 건

○ 심의사항

- 1)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5. 심의결과 개요

○ 심의사항




- 1)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의결

6. 회의내용

가. 성원 보고

- 사회가 재정위원 15명 중 13명 참석하여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여 회의를 개시함.(16:10)

나. 안건심의를 위한 개회선언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 위원장이 재정위원회 안전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선언함.

다. 심의사항

안전 1.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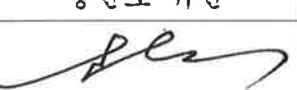
- 안홍섭 위원장이 제1호 안전을 상정함.
- 재무과장이 안전 1호에 대하여 설명함.(~16:30)
- 위원장 :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내용을 회의 자료의 숫자만으로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으므로,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모성 위원 : p57보시면 이·전용 및 이체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용은 입법과목, 전용은 행정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재무팀장 : 항간 변경은 이용에 해당되고 목간 변경은 전용에 해당됩니다.
- 재무과장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7년과 2018년은 예산 과목이 많이 바뀌었으며 오늘은 결산관련 회의에 해당되므로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현호 위원 : p6 운영차익의 ‘총수익-총비용’ 과 p7 이후의 ‘세입-세출’ 용어 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하종수 회계사 : 예산 결산과 재무 결산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세입-세출과 관련한 예산결산은 단식부기에서 출발하여 현금주의에서 하는 부분이며 재무결산은 교육부의 재무결산 작성지침 및 국립대학회계 기준에 의하여 총수익과 총비용을 구분하는 발생주의를 도입한 개념입니다. 재무보고서 p2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는 이월금이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재무결산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통장 상 잔액으로 남을 뿐 이월처리 하지 않습니다.
- 양현호 위원 : 예산결산에서는 이월금을 세입으로 보는 것과 재무결산에서는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세입으로 잡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하종수 회계사 : 그렇습니다.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항회계는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한모성 위원 : p2 보시면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파악됩니다. 이 이월금이 안 들어가나요?
- 하종수 회계사 : 예를 들면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총수입과 총비용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남는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입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동일한 금액으로 수입 처리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 그대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재무과장 : 결산(안) 설명에 이어 회계사님께 재무보고서 관련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재무보고서 부분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하종수 회계사가 안건 1호 관련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함.(~17:03)
- 위원장 :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성수 위원 : p67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보면 수납액에서 작년대비 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2016년도에도 아마 잉여금이 50억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도 59억 정도인데, 2018년도로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을 18억 정도로 안내 받았습시다. 매년 비슷한 추세인데 이번 해에는 어떤 이유로 낮게 안내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 결산이 나오기 전에 2018학년도 예산 편성 시 18억 정도를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며 이는 재정효율화 팀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책정해놓고 돈이 부족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존에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되, 추경요인이 발생하게 됨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이유로는 시설비 쪽에서 대응자금에 써야 하는 10억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정도를 시설과에서 사용하지 않고 아낀 이유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앞으로 추경에 쓸 돈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 박경원 위원 :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료의 1년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 p9를 보시면 2백 9십 3억입니다.
- 박경원 위원 : 순세계 잉여금이 교무처장님 말씀처럼 50억 정도입니다.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금액이 3백 억 정도인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만큼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실험실습비 등 기본 운영비가 계속 10~15% 일괄적으로 깎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해 가능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 제가 2018년 1월 1일에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재정효율화 팀에서는 10년간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매년 악화되는 재정을 염려하여 회계 상 맞지는 않으나 추경에 돈이 남으면 돈을 아껴 그 다음해에 넘기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 효율화 팀 위원이셨던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비비 7억, 공공요금 7억 정도가 있었는데 좋은 뜻으로 그 당시 재정효율화 팀장님께서 돈을 아끼어 놓으신 내용입니다. 아낀 금액을 보시면 시설비 10억을 합하면 24억 정도가 됩니다.
- 양현호 위원 : 현재는 제가 재정효율화 팀장인데 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순세계 잉여금 50억 규모에 대해서는 이 회의 자료를 보기 전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정보로 2018학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을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하여 설명부탁 드립니다.
- 한모성 위원 : 저는 전 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계실 때에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 시에도 매우 보수적인 측면에서 예비비, 공공요금에 14억 정도를 넣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잉여금이 59억 순세계 잉여금이 50억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중에서 이미 20억 정도는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2018학년도 예산 편성 시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모아놓은 돈들이 있어서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며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현재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후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 쓰도록 하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시 43%로 깎는 아픔 있었으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좋은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미 위원 : 학교예산이 개인 돈도 아니고 매년 학생들이 배출 되고 졸업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돈을 아껴서 나중에 사용한다는 것이 과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과 비슷하다하면 올해 예산 편성 시에 그러한 뉘앙스는 주셨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학내 및 학과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근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경원 위원 : 재무과장님께 순세계 잉여금에 관하여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일단 작년까지 저도 재정효율화팀원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조직이 운영이 되다보면 매년 처장님, 재정위원회 위원, 재정효율화팀 위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방금 학생처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단절이 되는 측면이 있어 공론화 되어 한번 이야기 했으면 했고 저보다는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재정효율화팀 팀장을 당시 기획처장님이 하고 계셨고 저희 효율화팀에서는 5년간의 군산대학교 장기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학생 감소화로 인한 학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습니다. 사실 재원을 줄여 추후 재정악화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서비스가 극단적으로 제약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확보했던 또 다른 이유로는 교직원들의 기본적인 급여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이었으며 최근에 학술활동경비 등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규정이 바뀌고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 재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재무과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 고무적이었지만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결산과 관련하여 이전에 진행되었던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최근에 자세히 읽어 보게 되면서 그 당시 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효율화 팀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무과나 당시 국장님께서서는 우리 학교가 너무 예산이 어려우니 이월금이 얼마일 지 모르나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 10억 정도를 재원에 플러스 할지 아니면 이대로 보수적으로 진행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내년에 이 규모를 넣자 하시면 비슷하게 진행 할 것이며 다만 돈이 덜 건히거나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재정효율화 팀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당시 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동의가 되어 위와 같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양현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타하는 것이 아니며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직제 상 재정효율화팀장을 기획처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저도 매년 우리 학교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에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지금과는 같아서 안 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설과 대응자금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사항입니까?

- 재무팀장 : 국고 시설비가 오면 그에 대응하여 대응자금을 써야하는데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시설과에서 쓰지 않고 남긴 사항입니다. 나중에 교육부에서 그 사항을 알게 되어 교육부로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 양현호 위원 : 그렇다면 나중에 그만큼을 지출을 하여야 합니까?

○ 재무팀장: 국고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줄 것으로 보입니다.

○ 박경원 위원 : 예전에 들은 바로는 학생회관 쪽 공사 시 체육관 대응자금을 사용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과나 관련 직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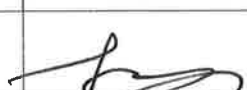
○ 재무과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철 위원 :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재정위원회나 재정효율화팀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학을 잘 세우면 예산을 남길 수도 있거나 전체를 다 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이 10년 안에 교수들이 대거 퇴직하고 신입이 들어올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고는 있으나 인건비 측면에서 절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갈지 재정효율화 팀에서 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못 사는 기업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돈을 아끼려하나, 대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은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더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대학이 어려워지는 현실이라 하면 반대로 남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철학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처장님 말씀처럼 교수님들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향후 개선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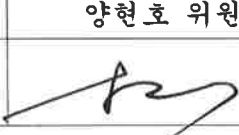
○ 한모성 위원 : 재정위원회는 법에 의해 설립된 최고의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임에도 현재 모든 것이 재정효율화팀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계셨던 박성수 국장님께서 재정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말씀드려보면 재정위원회 운영 시 회기를 두고 모든 내용을 속기사가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양현호 위원 : 국립대 회계법이 설립된 이래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위원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회는 재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 할 수 없기에 총장님의 자문기구로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재정효율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화 팀원들이 전문성 있게 내용을 검토하여 총장님께 보고하면 재정위원회에 넘기게 되는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회기를 두고 재정위원회를 길게 운영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효율화팀이 3년째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려 예산 실무팀과 재정위원회의 중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 등에 더욱 더 노력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성수 위원 : p5를 보시면 유형 자산이 5,749백만원, 무형자산이 562백만원 감소하였고 재무보고서 p9에도 큰 규모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하중수 회계사 : p23 유형자산 쪽을 보시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국가 회계는 12월 말로 되어 있고 대학회계는 2월 말의 회계이다 보니 집계를 하다보니 물품 쪽에 중복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 회계 연도 상 집기비품 쪽에서 62억 정도를 제외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코러스 상 복식부기 결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 자료로 이해해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국가 복식부기 안착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경원 위원 : 예년처럼 결산 관련하여서도 재정효율화 팀에서 검토를 하면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감사 관련 회계법인 선정 시 전라북도나 군산을 연고로 하는 법인이 아닌 서울에 있는 법인으로 진행이 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 국립대학이 대학회계로 바뀌고 회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교육부에서 활동도 하고 내용을 잘 아는 법인을 작년에 선정한 것으로 들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하중수 회계사 : 제가 2016년도에 교육부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예산담당관실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에서 근무 시 모든 대학의 국가수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대학회계의 복식부기가 전문영역이다 보니 현재 서울의 회계 법인이 대부분의 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감사와는 다른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5년~1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향후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한모성 위원님께서 국회 예·결위 처럼 구성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를 연구하기에는 역부족인 관계로 효율화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대로 진행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효율화팀을 최대한 활용하되 앞으로 소통을 잘 하시어 상황에 변수가 생긴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서로 알고 조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모성 위원 : 소통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당시에는 재정위원장님이 재정효율화 팀원이셔서 효율화 팀에서 논의된 사항이 재정위원회에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현재는 효율화팀장님이 따로 계셔서 효율화 팀을 기획처장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 양현호 위원 : 1기 재정효율화 팀 운영 시 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재정효율화 팀원이셨는데 바뀌게 된 이유로는 재정효율화팀에서 논의된 내용 그대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모순이어서 구성원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삼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재정효율화팀 회의 내용을 회의 자료에 첨부하는 것은 어떻게습니까?
- 재무과장 : 예산은 재정 효율화팀에서 편성 시 검토되었으나 결산 또한 재정효율화 팀을 거치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다만, 사실 소통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처장님께서 재정효율화 팀 팀장님이시지만 다른 분께서 효율화 팀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결산 관련하여 효율화팀을 거치고 처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면 향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현호 위원 : 2018학년도 대학회계 예산 편성 당시 저는 기획처장 내정자 입장에서 청취하는 입장이었으며, 그 이후에라도 사회대 학장님한테라도 이야기가 됐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경원 위원 : 학생들 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P7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성과’ 지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하종수 회계사 : 도출 된 교육비 환원율 319%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힘드나 도출 근거로써 비용 총계를 교육활동 수입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개념입니다. 지침에 분석 자료가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산출되었습니다.
- 양현호 위원 : 제가 설명 드리면 교육비 환원율은 ‘고등교육통계’와 ‘대학 기본역량평가’ 항목으로써 이대로 라고 하면 우리대학은 학생들이 100원을 내면 319원의 종합적인 혜택을 받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장학금 비율은 학생들이 100원을 내면 21원을 장학금으로 받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고등교육통계에서는 실제 교육 수혜자가 자신이 낸 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다시 제공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 사실 예산을 미래의 개념이라고 하면 결산은 과거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단기로 1년 결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3~4년 동안의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이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7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

7. 회의록 간(間) 서명 위원 선출

- 이성수 위원, 이성미 위원, 양현호 위원을 선출함.

8. 폐회 선언

- 위원장이 재정위원회 폐회를 선언함(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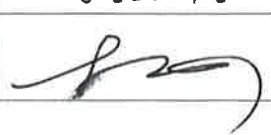
2018. 5. 8.

▷ 위 원 장 : 안 홍 섭 (서명)

▷ 간 사 : 천 미 경 (서명)

▷ 재무팀장 : 이 승 민 (서명)

▷ 기 록 자 : 이 소 진 (서명)

| 간서명 위 원 | 이성수 위원 | 이성미 위원 | 양현호 위원 |
|------------|---|--|---|
| |  |  |  |